

송고한 정신으로 꽃피운 새로운 삶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 그리고 의료진 간의 의학적, 법률적, 행정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조정과 중재를 담당한다.

지난 1992년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초 뇌사기증자의 다장기 적출과 이식수술을 성공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만 1,000건이 넘는 장기이식을 진행하며 장기이식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 지금도 매달 백 건 이상의 장기이식을 통해 새 삶을 찾는 기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긴박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장기이식센터는 매순간 긴장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센터 직원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장기이식이란 엄중한 사명을 묵묵하게 이어간다.

기 본을 지키며 엄격하고 공정하게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에는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3명을 비롯해 사무직원과 장기 조직을 취급하는 담당자 등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 흥정자 코디네이터는

1999년부터 근무하며 현재 장기이식센터를 이끌고 있다.

“요즘 인기 있는 의학 드라마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이야기가 나왔나봐요. 많은 분이 저희 일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한 줄로 요약하면 장기이식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죠.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 그리고 의료진 간의 의학적, 법률적, 행정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장기이식은 크게 생체이식과 뇌사자이식으로 나뉜다. 생체이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 이식을 받는데 가족, 친척, 친구 등 대가 없는 순수한 기증에 한해 가능하다. 뇌사자이식은 불의의 사고나 심각한 질병으로 뇌사 상태가 된 기증자로부터 이식을 받는 것이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들의 업무는 간, 신장, 심장, 췌장, 폐 등 장기 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장기 기증자가 발생하면 이식팀에 이 상황

을 보고하고 이식 대상자를 체크하는데요, 장기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간, 심장, 폐의 경우에는 응급도가 높아서 이식 대상자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식이 이뤄지기 어려워요. 신장과 췌장은 조직적합성 교차검사 등 수술 전 거부반응에 대한 세심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식 대기자들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외래 방문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건 기본이죠.”

떠나는 이가 남긴 묵직한 울림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뇌사 상태의 환자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권유하는 건 아무리 오랜 경력이 쌓여도 힘들다. 2004년부터 일해온 김인옥 코디네이터는 말하는 본인보다 그 이야기를 듣는 가족들이 더 힘들기에 자신이 힘들다는 생각을 애써 지우며 담담하게 마음을 바로잡는다.

“환자 가족 입장에서선 황망한 심정을 저희들에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 핏줄을 떠나보낼 수 없다, 그 삶의 의미를 남기는 게 가족의 할 일이라며 저희를 다시 부르세요.”

뇌사 환자 가족들의 어려운 결심을 마주하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의 마음은 다시 숙연해진다. 이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 가족의 장기기증이 결정되면 뇌사가 맞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지은 후, 환자의 장기기증을 진행한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이 과정을 조율하며 장례까지 마지막 예우를 다한다.

“많은 환자가 기억에 남지만 몇 해 전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20대 환자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그분은 췌장 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사 상태에 빠지셨어요. 딸의 건강을 늘 노심초사 걱정하시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딸의 장기기증을 결심하셨어요. 딸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장기를 받고 희망을 찾았던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며 눈물지으셨어요. 따님과 어머니도 장기기증을 간절히 기다리셨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 가족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지금도 두 분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이새롬 코디네이터는 그동안 만났던 분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 하나 애절하지 않은




뇌사 환자 가족들의 어려운 결심을 알기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사연은 없었기에 부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떠난 분들의 고귀한 결정을 오래도록 빛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선물 같은 새 삶

시간이 흐르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꾸준한 교육과 홍보로 많은 이에게 장기기증이 왜 필요한지 공감대를 넓혀가는 중이다.

“장기기증은 심각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어요.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에 빠진 환자가, 장기이식 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내원하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생명을 선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죠. 3년만 더 살았음 좋겠다 했는데 장기이식 후에 손자까지 봤다며 기뻐하는 어르신도 계세요.”

한 해 국내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이들은 400~500명 수준이다. 그런데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그 이상이다. 이런 이유로 장기이식센터 구성원들은 보다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 나눔이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장기기증을 통해 기적을 만드는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글 김지영